타인의 반응과 나의 재반응

(예레미야 15:1~21)

15.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1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타인의 반응과 나의 재반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타인의 반응과 나의 재반응'

"백설 공주에 나오는 왕비처럼 타인의 반응을 거울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정신과 의사들이 타인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내부지향적이 되기를 권면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관계하는 것은 마치 향수와 같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향기가 전달되고 좋든 싫든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설령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나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에 타인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안 좋다면 나의 말과 행동에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송탄에 계십니다.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의 2/3은 미군 관계자들입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두 가지 고충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개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기절할 정도로 송아지만한 개들을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는 향수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숨을 못 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초기에 독일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살에 유학을 갔으니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는데 항상 제 옆에 와서 앉는 프랑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앉는 것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만 이 학생의 행동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신장이 작고 마른 체격에 나비모양의 짙은 뿔테 안경을 썼기에 신경이 예민해보였습니다. 당시에 외국에 나가면 향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선물로 받은 것을 조금씩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학생이 제 옆에서 계속 중얼대는데 제 향수 냄새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지 않았습니다만 중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꺾으면서 뚝뚝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왜 항상 제 옆에 와서 앉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독어도 자유스럽지 않았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반응은 신경 쓰기도 쉽지가 않고 신경을 아예 끊자니 마음에 걸립니다. 타인의 반응에 빠지면 정신과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평생 타인의 반응을 살피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 보입니다. 19절 앞부분을 보면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간격이 생겼다는 말인데 대체 어떻게 하다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또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가간 것을 전제로 하거나 다가갈 위험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말인데 심각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유다 백성을 일컫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는 와디이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와디'는 겨울철 우기 때에만 잠깐 흘렀다가 곧 사라집니다. 나그네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에 강물이 흘렀던 곳을 기억하고 찾아오게 되는데, 이미 와디는 바싹 말라버렸기에 기대감은 좌절되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의욕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족들에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 같이 멸망과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예언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 또한 적대적이거나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족들에게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앞부분을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써 예언활동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멸망 예언만 했으므로 동족들의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하면서 예레미야는 지쳐버렸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회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멸망 예언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적대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다보니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떠한 재반응을 보이느냐가 무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설령 모세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선민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중단시킬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선민들에게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민들을 돌이키시고자 하셨으나 선민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민들에 대해 지치셨고 그 결과로 반드시 이들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선민들에게 주어질 사중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살해당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죽고 나서도 매장당하지 못한 채 들개들에게 찢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찢긴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어치우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고도 모자라서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중처벌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포화가 선민들의 육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단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중처벌을 예언하는 이유는 아직 침략을 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민들의 육체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인의 반응에 올바르게 재반응하기 위한 사전지식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16~17절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민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예레미야는 절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선민들의 육체에 대해 사중처벌이 예언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붙느냐 세상에 붙느냐에 따라서 마음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 또한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스펀지를 짜내면 흡수했던 것이 나오기 마련이듯이, 마음으로 흡수한 것이 육체로 표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마음에 하늘기운이 흡수됩니다. 그럴 때에 육체는 관계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하늘기운을 발사하는 활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모든 대상에게 하늘기운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세상에 붙어버리면 육체로 접하고 있는 대상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에 마음은 세상에 대해 판단과 계획과 소원을 갖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흡수한 마음이 다시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번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육체라는 활을 통해 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과 다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늘기운이 가득 차자 육체를 활로 삼아 백성들에게 하늘기운을 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기운의 화살을 맞은 자들의 반응이 예레미야에게 가혹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잖게 봅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에 전혀 호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하면서 따집니다. 큰 교회일수록 후임 목사님들의 고충이 말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네 번 설교해서 한 번만 교인들의 반응이 좋으면 목회에 성공한다."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매번 백성들에게 적대시 당했으니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골이 생겼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고, 그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 결과는 예레미야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동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회개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단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심정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편지를 주시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에 대한 재반응은 실수입니다. 예레미야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재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은 성도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선지자나 설교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부부의 마음이 서로가 아닌 하나님께 붙어서 하늘기운을 흡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늘기운을 쏘는 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늘기운을 마음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활로 삼아 하늘기운을 세상을 향해 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흡수해버리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세상에 붙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이 하늘기운으로 채워진 것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남을 통해서 만족하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선민들의 반응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인을 마주하는 설교자든 서로를 마주하는 부부이든 하나님의 뜻을 쏘았으면 그 반응에 조마조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됩니다. 세간에서는 자꾸만 배려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배려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먼저 각자가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서, 서로를 첫 번째 관심사로 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배려가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흡수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인들의 반응이 좋든 나쁘든 마음은 반응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있

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6장 9~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아예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선민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늘기운을 전하면서 선민들의 반응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무너지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기운이 들어왔고 그 기운을 쏘았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좋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반응을 마음으로 흡수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마음은 오직 하늘에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기에 이런 반응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반응을 칼로 무를 잘라내듯이 거절하며 1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반응에 마음을 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제가 관찰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자녀에 대한 마음을 죽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붙였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십자가 생활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반응에 마음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샛눈을 뜨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슨 좋을 일을 해주실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녀에게 긍정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뭐하냐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붙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잊을 때에는 마음은 육체로 만나는 세상을 흡수합니다. 세상을 흡수하면 그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오직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할 때에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십자가 생활화로 일어나게 될 세상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잊고 사는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세상의 반응과 무관한 기쁨과 평강은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어야합니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접촉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친해짐은 더해지고 마음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때에 타인의 반응과는 상관없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든 나쁜 반응을 보이든 나의 기쁨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면 기쁠수록 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쏘는 활이 됩니다. 세상의 반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방송을 시작할 때에 그 방송을 몇 명이나 듣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말씀을 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려진 씨 중에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을 맺듯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1/4만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되더라도 충분하다는 심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듣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애를 쓸 뿐입니다. 반응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으려하는 것입니다. 굳이 기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 또한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거는 것이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하나님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형통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한 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겪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